

최근 국내외 인덱스펀드 현황

- 최근 국내외 펀드시장에서 액티브펀드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가지수를 추적하는 인덱스펀드 비중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펀드비용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
- 미국은 주식형 뮤추얼펀드 대비 인덱스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4%(ETF제외)이나 우리나라는 주식형펀드 대비 인덱스펀드 비중이 46%(ETF포함)로 급성장
- 향후 새로운 지수 도입에 따른 신상품 출시와 낮은 비용과 안정적인 수익률, 퇴직연금 등 장기투자성향 증가 등으로 인덱스펀드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

□ 최근 미국 뮤추얼펀드 시장에서 인덱스펀드와 ETF 등 패시브펀드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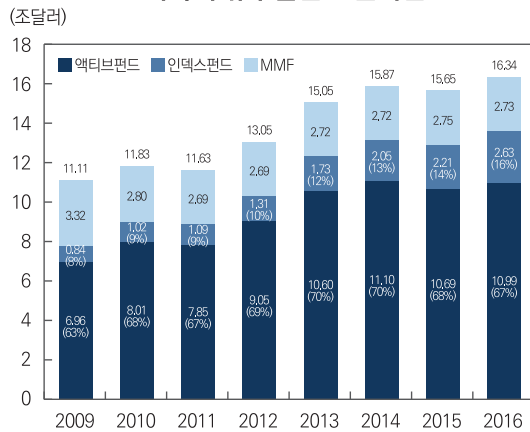
- 미국의 뮤추얼펀드 자산은 액티브펀드와 인덱스펀드, MMF로 구성되어 있음
 - 미국 뮤추얼펀드 순자산 규모는 2016년말 16.3조달러이며, 액티브펀드와 인덱스펀드의 규모가 13.6조달러를 차지하고 있음
 - 이중 액티브펀드의 순자산규모가 2016년말 10.9조달러로 비중면에서 전체 뮤추얼펀드의 67%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
- 반면, 인덱스펀드의 순자산 규모는 2009년말 0.8조달러에서 2016년말 2.6조달러로 증가, 전체 뮤추얼펀드에서 인덱스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동기간 8%에서 16%로 크게 확대됨
 - 인덱스펀드는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지수수익률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익을 실현하는 펀드를 의미
 - 펀드 수도 액티브펀드가 2009년말 7,550개에서 2016년말 8,669개로 약 15% 증가할 때 인덱스펀드의 수는 동기간 18% 증가함¹⁾
- 대표적인 패시브펀드인 ETF도 인덱스펀드와 함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
 - ETF(상장지수펀드)는 특정지수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펀드로 인덱스펀드와 뮤추얼펀드의 특성을 결합한 대표적인 패시프상품임
 - ETF의 순자산 규모는 2009년말 0.7조달러에서 2016년말 2.5조달러로 급증하였으며, 펀드 수 역시 동기간 115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²⁾

1) 뮤추얼펀드 수: 8,611개('09) → 8,673개('11) → 9,248개('14) → 9,511개('16)
 액티브펀드 수: 7,550개('09) → 7,659개('11) → 8,349개('14) → 8,669개('16)
 인덱스펀드 수: 357개('09) → 371개('11) → 382개('14) → 421개('16)
 2) ETF 수: 777개('09) → 1,048개('11) → 1,975개('14) → 2,524개('1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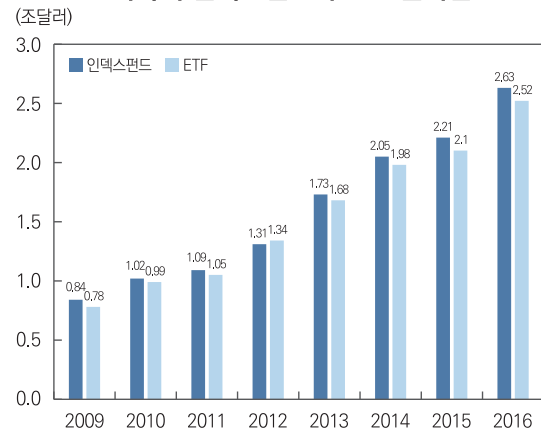
패시브펀드와 액티브펀드 특징

	패시브펀드	액티브펀드
수익률목표	추적지수인 벤치마크지수수익률	벤치마크대비 초과수익률
운영방식	특정지수 추적으로 펀드매니저의 역량은 낮은편	초과수익 추구를 목표로 펀드매니저의 역량이 필요
초과수익방법	포트폴리오구성 및 배당 등	자산배분, 종목선정 등
리스크	낮은편	높은편
비용 및 보수	낮은편	높은편
매매회전율	낮은편	높은편
특징	특정지수를 추적함에 따라 펀드간 수익률 격차는 낮은편	펀드매니저 역량에 따라 펀드별 수익률 격차는 높게 나타남
대표상품	인덱스펀드, ETF	뮤추얼펀드 등

미국의 뮤추얼펀드 순자산



미국의 인덱스펀드와 ETF 순자산



주 : 1) ETF 및 재간접펀드는 뮤추얼펀드 규모에서 제외
 2) 각 연말 자료 기준
 자료: ICI

□ 미국 뮤추얼펀드에서 인덱스펀드와 ETF의 빠른 성장세는 주로 펀드비용의 감소에 기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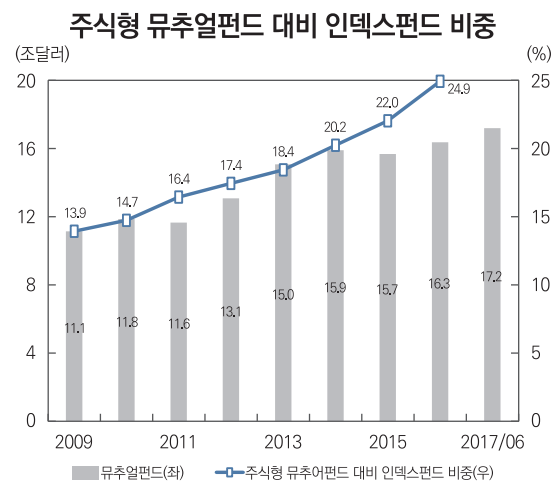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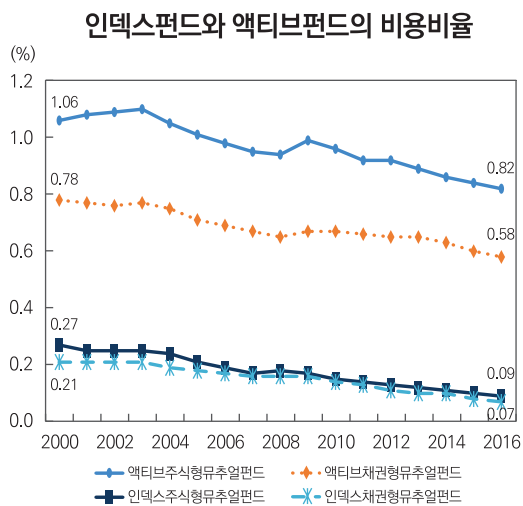
- 미국에서 인덱스펀드의 빠른 성장은 액티브펀드가 시장수익률을 초과하여 수익률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투자자들의 장기투자성향으로 보수 및 비용 측면에서 낮은 펀드를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된데 있음
 - ICI자료에 의하면, 2016년말 기준 액티브주식형펀드의 비용비율이 0.82%로 가장 높고 인덱스채권형펀드의 비용비율이 0.07%로 가장 낮음³⁾
 - 인덱스펀드 및 ETF는 매매회전율이 낮아 거래비용 등의 비용이 절감되며, 특정지수 수익률을 추구함에 따라 종목 발굴 및 마켓타이밍 등의 전략을 요하지 않아 액티브펀드보다 운용보수가 낮다는 장점이 있음

3) ICI, 2017, 2017 Investment Company Fact Book.

-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이후 매년 미국 대형주인 S&P500에 투자되는 주식형펀드에 유입되는 자금의 30%가 인덱스유형으로 들어오며 인덱스펀드 중 펀드비용이 가장 낮은 펀드(약 20bp 이하)를 선택한 조사결과를 볼 때 펀드를 선택함에 있어 펀드비용이 중요한 결정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음⁴⁾

□ 인덱스펀드는 주식형과 채권형, 하이브리드에 투자하며, 이중 주식형의 비중이 전체의 81%로 가장 높은 편임

- 미국 주식형 뮤추얼펀드 대비 인덱스펀드 비중은 2009년말 13.9%에서 2016년말 24.9%로 크게 확대됨
- 미국 주식형 인덱스펀드는 미국에서 대형주(US large-cap indexes)들로 이루어진 S&P500 지수를 주로 추적하고 있음⁵⁾



주 : 1) 각 연말 자료 기준, 미국 주식형 뮤추얼펀드 대비 인덱스펀드 비중 2017년말 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

2) 주식형 뮤추얼펀드 대비 인덱스펀드 비중에 ETF는 제외

자료: ICI

□ 국내 인덱스펀드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본격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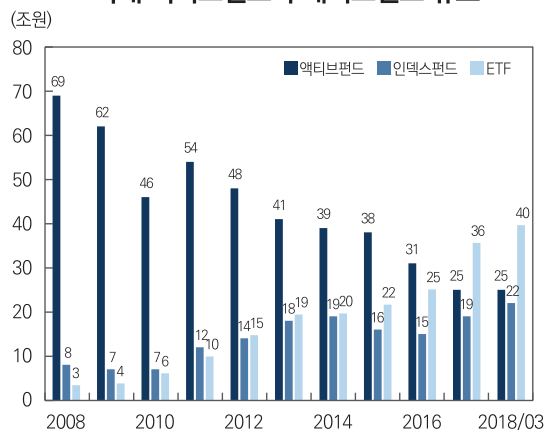
- 최근 액티브펀드 대비 인덱스펀드 및 ETF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
 - 2008년말 액티브펀드의 설정액이 국내 주식형펀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9%였으나 2018년 3월말에는 54%로 감소

4) www.indexfund.co.kr

5) 미국의 인덱스지수는 Wilshire Large Growth, S&P 500, Wilshire Large Value, Russel 2000, MSCI The World, Lehman Bros. Long-Term Govt/Corp 등이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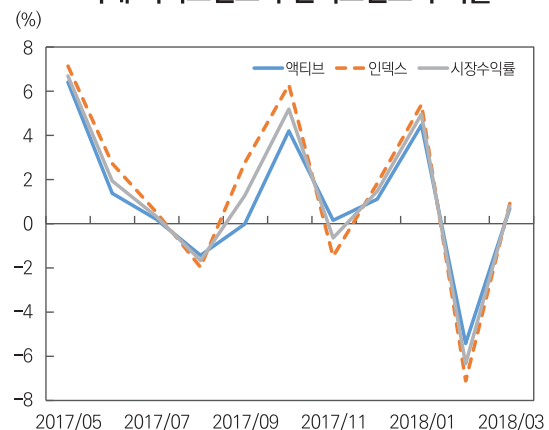
- 반면, 인덱스펀드는 국내 주식형펀드 시장에서 약 8%(2008년말)에서 46%(2018년 3월말)로 증가
- 국내 ETF도 2015년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의 ETF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연기금의 ETF 수요 증가로 2008년말 3조원에 불과하던 ETF 순자산은 최근 40조원을 넘으며 급성장
- 인덱스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는 주된 이유로 낮은 비용 및 보수 등으로 수익 측면에서도 액티브펀드보다 유리한데 기인
 - 2016년 이후로 금융시장 호황으로 코스피 및 코스닥 등을 추적하는 인덱스펀드의 수익률이 국내 시장수익률을 초과
 - 2018년 3월말 기준 시장수익률은 0.80%이고 액티브펀드는 0.68%, 인덱스펀드는 0.91%로 시장수익률을 상회

국내 액티브펀드와 패시브펀드 규모



주 : 1) ETF는 순자산, 액티브펀드와 인덱스펀드는 설정액 기준
 2) 각 연말 자료 기준
 자료: Fnindex

국내 액티브펀드와 인덱스펀드 수익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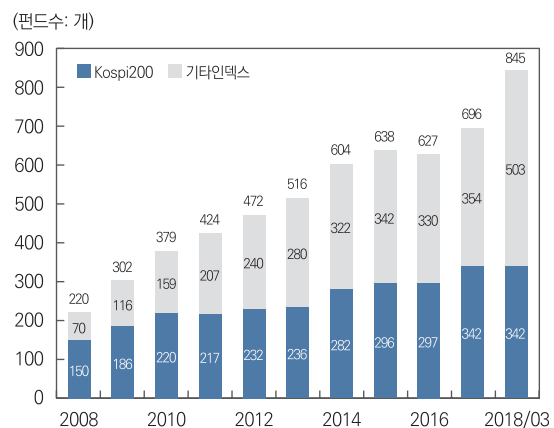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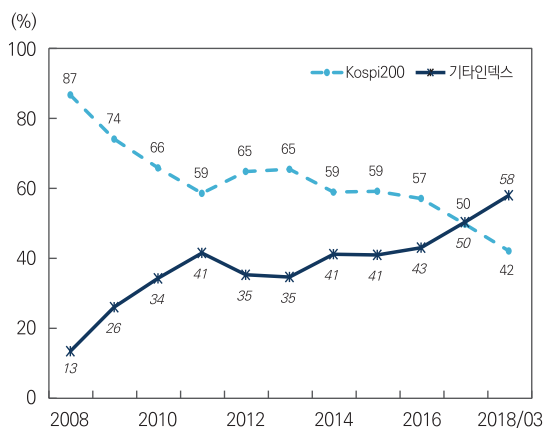
□ 국내 인덱스펀드가 추적하는 지수로는 KOSPI200이 가장 많으며, 최근 새로운 지수 도입 등으로 인덱스펀드로의 자금유입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

- 국내 인덱스펀드 지수로 KOSPI200, KRX100 등 거래소에서 발표되는 지수와 국내외 금융업체에서 발표하는 MFK500, FnKorea50, Wise지수회사테마지수, S&P500 등이 있음
 - 초기 국내 인덱스펀드가 도입될 때 전체 시장지수를 추종하기 어려워 상위 200개 기업을 선정해 만든 KOSPI200 지수가 유일한 대표지수였음
 - 이후 거래소 및 국내 금융업체에서 산출해서 발표한 다양한 지수가 나왔으며 현재 인덱스펀드(ETF제외)에 사용되고 있는 지수의 수가 약 92개로 조사됨⁶⁾

6) 한국거래소와 에프앤가이드와 와이즈에프엔에서 인덱스펀드에 사용되고 있는 지수의 수를 대략 집계한 수임

- 이중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차지하는 인덱스펀드 지수 중 KOSPI200이 전체의 42%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
 - 2008년말 인덱스펀드에서 KOSPI200 지수를 추적하는 펀드 비중이 87%였으며, 2017년 3월말 42%로 감소
 - 2018년 3월말 현재 단일지수로 KOSPI200을 추적하는 인덱스펀드의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기는 하나 기타지수들의 설정액이 인덱스펀드의 58%로 증가하고 있음⁷⁾
- 최근 지난 5일 한국거래소에서 KRX300 지수를 발표하였으며, 자산운용사에서 이 지수를 활용한 인덱스펀드 상품이 출시되고 있어 앞으로도 인덱스펀드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
 - 신한 BNP스마트KRX300인덱스펀드와 한국투자KRX300인덱스펀드, 삼성KRX300인덱스펀드 등이 KRX300 지수를 추적하는 대표적인 인덱스펀드 상품임

인덱스펀드에서 kOSPI200과 기타지수 설정액 비중 및 펀드 수 추이



주 : 각 연말 자료 기준, ETF포함
자료: 제로인

선임연구원 장지혜

7) 제로인데이터 기준으로 현재 국내 주식형펀드 대비 인덱스펀드 비중은 46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이중 KOSPI200 지수를 추적하는 인덱스펀드 규모는 9.4조원(42%)이며, 기타인덱스를 추적하는 인덱스펀드 설정액은 12.9조원(58%)을 차지하고 있음